

JUNE 2021 VOL.632

hyangjang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PRODUCT 6월의 필수템

SPECIAL 여름을 준비하는 뷰티 팁

ISSUE 청결한 손 유지하기

AMOREPACIFIC

SINCE 1958

〈향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4년간 632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OREA.COMWEB
WWW.APGROUP.COMCOPYRIGHT 2021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1년 6월 1일
발행 통권 632호
발행인 서경배
편집인 안세홍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방판 컨텐츠&서비스팀
인쇄 (주)태신인쇄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이성진, 이미경
디자인 www.pentagramgraphic.co

※〈향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 02 NEWS**
6월의 가장 핫한 뉴스
- 06 NEWS-TREND**
한없이 맑은 코랄
- 08 MAKEUP**
헤라 아이 엠 컬렉션
- 14 SPECIAL**
여름을 준비하는 뷰티 팁
- 22 PRODUCT**
6월의 필수템
- 28 MAKEUP PLAY**
가볍고 산뜻한 초여름 메이크업
- 32 PRODUCT**
설화수
- 34 PRODUCT**
헤라
- 36 PRODUCT**
아이오페
- 38 PRODUCT**
헤라의 새로운 클렌징 라인
- 42 INGREDIENT**
모발과 두피를 위한 검정콩
- 44 ICON**
6월의 인물 인터뷰
- 48 ISSUE**
청결한 손 유지하기
- 50 REVIEW**
믿고 보는 품평단의 꼼꼼 리뷰
- 52 PLACE**
푸르게 푸르게, 반려식물 숍
- 54 ESSAY**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
- 56 EDITOR'S PICK**
6월의 강추템



HYANGJANG JOURNAL

THE RISE OF BRA TOP : 뜨겁고 찬란한 여름을 목전에 둔 지금, 아찔한 브라톱 스타일링에 시선이 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때론 로맨틱하고 때론 시크한,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브라톱이 시즌 트렌드로 급부상 중이다.

editor LEE MI KYUNG

따사로운 햇살, 서서히 오른 기온에 후끈해진 공기 때 문일까. 2021 S/S 시즌 디올, 에르메스, 샤넬, 발망, 보스 등 유수의 브랜드 컬렉션에 브라톱을 입은 모델들이 다수 등장하며 유독 두드러지는 브라톱의 활약에 눈길이 머문다. 자크뮈스와 비비안 후, 아크네 스튜디오는 실크 와이드 팬츠와 몸을 감싸며 자연스레 실루엣이 드러나는 시폰 스커트를 매치해 드라마틱한 여신을 현실에 재현했다. 디올과 에트로는 낭만적인 프린트와 컬러를 활용해 에스닉하면서도 로맨틱한 록을 선보였고, 가브리엘라 허스트는 나비 모양 가죽 브라톱에 와이드 팬츠를 더해 현대적인 멋을 발산한다. 그다가 하면 N°21은 강엄 체크 셔츠와 새틴 팬츠를 매치해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극대화했다. 브라톱은 다소 과감한 스타일이라 일상에서 무턱대고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그러므로 일상에서 활용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과감한 시도는 금물이다. 드롭처럼 심플한 룩에 레이어드해 포인트를 주거나 투브톱 원피스 속에 입어 관능미를 은근히 드러내는 식으로 활용해볼 것. 브라톱을 가장 쉽고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은 슈트에 매치하는 것이다. 브라톱에 클래식한 블레이저나 팬츠 슈트를 매치한 에르메스, 보스, 마르코 람발디, 제이슨 우 등의 이번 시즌 컬렉션을 참고하면 된다. 이때 재킷 단추를 모두 채우기보다는 위에서 한두 개만 채우거나 오픈해서 클리비지 라인을 은근하게 드러내는 것이 감각적인 스타일링 노하우다. 짧은 하의를 선택해 과감한 노출을 감행하는 것보다는 에르메스나 가브리엘라 허스트처럼 여유로운 실루엣의 트라우저를 매치하거나 샤넬처럼 슬릿 스커트나 베뮤다팬츠와 스타일링하는 편이 세련 돼 보인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자.

패션이 과감한 만큼 메이크업은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이 정석. 깨끗하게 빛나는 피부에 불러셔로 생기를 더하고 내추럴한 립스틱을 바르면 된다. 다소 미밋하게 느껴진다면 선명한 레드 립으로 포인트를 주는 정도면 충분하다. 무엇보다 스타일링을 고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근이 아닐지? 노력하고 가꿀수록 티가 나는 부위이니만큼 이번 시즌, 브라톱 트렌드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복근 운동을 시작할 일이다.





세월의 흔적을 담은 뉴 아이코닉 스니커즈

골든구스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브랜드를 대표하는 다섯 가지 아이코닉 스니커즈의 주요 요소를 결합해 탄생시킨 에디션이자 브랜드의 DNA가 담긴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 트웬티 스니커즈를 선보인다. 베스트셀링 모델인 슈퍼스타에서 영감을 받은 기본 프레임에 스웨이드를 조합한 화이트 가죽 소재, 레터링 등의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단 4백 켤레만 한정 수량으로 제작하며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다. 전 세계 일부 매장에서 20명을 선정하고 매장 내 이벤트를 통해 트웬티 스니커즈를 선보이며 더불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문의 골든구스 코리아(02-519-2929)



한 폭의 추상화가 된 패션

비비드한 블루 컬러 바탕에 빛나는 듯한 느낌의 화이트 스웨터 패턴,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프린트가 인상적인 이번 시즌 아크리스의 루은 현존하는 미니멀리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독일 작가 이미 크노벨(Imi Knoebel)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 화이트와 퓨어 오렌지 등 시즌 컬러와 어우러지는 그의 '블루 엔젤' 프린트는 오버핏 블라우스, 뮤니 블라우스, 실크 스카프 등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아이템으로 재탄생해 새로운 계절에 대한 설렘을 불러일으킨다. 문의 아크리스(02-3479-1813)



스타일리시한 여름을 위한 아이템 3

내추럴 무드의 여름 패션 아이템 세 가지를 소개한다. 먼저 헬렌 카민스키의 라피아 와이드 브레이드 플렉햇은 거친 마감이 빈티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자투리 리넨과 라피아 브레이드를 함께 뜯는 업 사이클링 기법으로 제작했다. 비대칭으로 자연스럽게 드레이핑 되는 르메르의 랩오버셔츠는 남녀 모두 입을 수 있는 젠더리스 아이템. 드라이 실크 소재로 부드러운 촉감과 은은한 질감이 매력적이다. 한편 디자이너 아제딘 알라이아가 고향인 튀니지 함마메트에 아름다운 학원을 가진 친구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알라이아의 릴리 백은 레이저 커팅 디테일과 꽃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형태가 특징이다. 문의 르메르(02-6905-3603), 알라이아(02-6905-3413), 헬렌 카민스키(02-517-1983)



미리 만나는 눈꽃 얼음 디저트

부쩍 더워진 날씨에 시원하고 상큼한 디저트가 떠오르다면 밀레니엄 힐튼 서울로 발길을 옮겨보자. 부드러운 눈꽃 얼음에 망고, 샤인머스캣 등 싱그러운 제철 과일을 더한 프리미엄 과일 빙수와 천연 벌집을 통째로 올린 클래식한 팥빙수까지 세 가지 빙수를 호텔 내 '실란트로 델리'에서 만날 수 있다. 새로운 빙수를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베이커리 상품과 디저트, 호텔 소믈리에가 엄선한 와인과 샤퀼테리 플래터 등 다채로운 페어링 아이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밀레니엄 힐튼 서울(www.seoul.hilton.co.kr)

노르딕 라이프스타일 쇼핑의 종착지

미니멀하고 실용적인 북유럽 감성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 스톡홀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르딕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아르켓(ARKET)이 서울 가로수길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아시아 최초의 매장인 더현대 서울에 이어 국내 두 번째 매장으로 현대적이고 유니크한 마켓을 지향한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홈 스타일링을 위한 폭넓은 셀렉션을 갖췄으며, 매장 내 카페에서는 각종 음료와 페이스트리, 스낵류로 구성된 베지테리언 메뉴를 제공해 제철 재료로 만든 북유럽 전통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 아르켓(02-767-2233)



BEAUTIFUL MIND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착한 기부 캠페인

아모레파시픽 방문판매는 여성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착한 소비 기부 캠페인인 '여성건강 이음 캠페인'을 진행한다. 5~6월, 바이탈뷰티의 자음보액, 자음미단, 프림로즈의 판매 수익 일부를 아이들과 미래재단을 통해 기부하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안전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간년기 여성의 흐트러진 몸속 균형을 바로잡아 일상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간년기 특화 앰플인 '자음보액', 흥삼과 대두 이소플라본 등 열 가지 전통 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흥삼환인 '자음미단', 감마리놀렌산을 함유해 월경 전후 불편증상과 면역과민반응으로 인한 피부상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림로즈'는 모두 여성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제품으로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을 위한 선물로도 제격. 이뿐 아니라 여성건강 관리의 라이브 강연과 콘텐츠가 카운셀러 몰을 통해서 소개된다. 카운셀러를 통해 착한 소비 기부에 참여해 건강관리에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고,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며 일상의 소비가 기부가 되는 기쁨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CHOI MIN YOUNG, KIM SA YOUN(제작)



photographer KIM HEE JUNE
editor CHOI HYANG JIN

나만의 캔버스, 아이 엠 컬렉션

단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나만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헤라의 아이 엠 컬렉션이 탄생했다.

다양한 내 모습을 펼쳐 보이고 싶다면, 캔버스 디자인으로 세련되게 디자인 된

헤라의 컬렉션 제품을 믹스 앤 매치해 나만의 룩을 연출해보자.



EARLY SUMMER VIBE

휴양지 햇살에 그을린 듯한 소녀의 모습을 표현한 룩. 헤라 아이 엠 멀티 팔레트 중 누드한 컬러의 ⑥ 노 룰즈를 아이홀에 넓게 펴 바르고, 새틴 텍스처의 브론즈 브라운 컬러인 ② 유니버스를 아이라인을 따라 바른 뒤 그려데이션해 깊이감 있는 눈매를 연출한다. 영롱한 글리터 ① 온 웨이를 눈썹 뼈에 터치하고, 글로우 밤 ④ 에딧을 광대뼈 위에 펴발라 하이라이트를 주어 전체적으로 입체감 있는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콧잔등과 뺨 앞쪽에 넓게 ③ 스포트라이트와 ⑥ 노 룰즈를 섞어 발라 상기된 듯한 치크를 완성하고, 입술에는 헤라 아이 엠 센슈얼 파우더 매트 #268 페이브를 스며지해 오렌지 누드 컬러로 물들인다.





MY HAZY EYES

레드와 브릭 컬러를 이용해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면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하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헤라 아이 엠 멀티 팔레트의 피치 누드 컬러인 ⑤ 노 룰즈를 아이홀에 넓게 펴 바른 뒤, 툰 다운된 레드 컬러인 ③ 스포트라이트를 눈두덩 중앙까지 발라 음영을 준다. ⑥ 드리머 컬러로 아이라인을 풀어주 듯 그리면, 은은한 브라운 둔으로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든 느낌의 스모키 아이 연출이 가능하다. 입술에는 헤라 아이 엠 센슈얼 파우더 매트 #421 애플을 입술 중앙부터 퍼지 듯 발라 마무리한다.

MODEL: HEO JIWON, MAKEUP: JAMIE YOUNG, LEE YOUN SUN,
HAIR: KANG JEONG CHANG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IN THE SPOTLIGHT

눈부터 볼까지 붉게 물들인 도발적이면서도 소녀감성을 간직한 룩. 헤라 아이 엠 멀티 팔레트 중 ③ 스포트라이트를 브러시에 묻혀 콧대부터 눈머리로 이어지는 부위와 광대뼈 윗부분에 바르고, 글리터 ① 온 웨이를 눈머리에 터치해 포인트를 준다. 광대뼈에 터치하는 모양과 위치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므로 그날의 무드에 따라 다양한 패턴으로 변주해볼 것. 입술에는 헤라 아이 엠 센슈얼 파우더 매트 #268 페이브를 발라 마무리한다.



여름의 초입에서

매일 조금씩 올라가는 기온과 부쩍 강렬해진 햇빛.

드디어, 여름이 왔다. 몸도 피부도 지치기 쉬운 이 계절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내기 위한 노하우를 모았다.

photographer KIM HEE JUNE(인물),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1 얼굴의 묵은 때 벗기기

땀이 계속 나고 찜찜하다고 매일 수차례 세안을 하는 것은 금물. 자칫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세안을 거듭하기보다 한 번에 각질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미세먼지와 마스크로 인한 자극으로 과하게 생긴 각질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 보이고 메이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계속 방치하면 피부 장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더욱 예민하고 건조해질 수 있다. 건성 피부는 일주일에 1회, 지성 피부는 일주일에 2~3회 자극이 없는 각질 제거제로 묵은 각질을 벗겨내는 것이 이상적이다.



프리메라 페이셜 마일드 펄링
투명한 젤이 피부 각질과 피지를 흡착해 자극 없이
매끈하고 맑은 피부결로 가꿔준다. 사용 후 얼굴이
땅기지 않고 촉촉한 것도 장점. 150ml, 3만원.



#2 빠르게 영양 채우기

피부 속 수분량은 세안한 지 30초 후 41%, 1분이 지나면 35.8%로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마를 틈 없이 바로 스킨케어를 시작해야 한다. 세안 후 깨끗한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얼굴의 물기를 닦은 뒤 토너에 적신 화장솜으로 닦아낼 것. 이후 흡수가 빠른 워터 타입 에센스를 바르면 스킨케어의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번들거리지 않으면서도 피부의 바탕을 건강하게 다져줄 탄력영양크림도 이맘때 쓰기 좋은 제품. 피부가 힘을 잃었으면 단기간에도 피부의 건강을 확실하게 되찾아줄 스페셜 케어 제품을 쓰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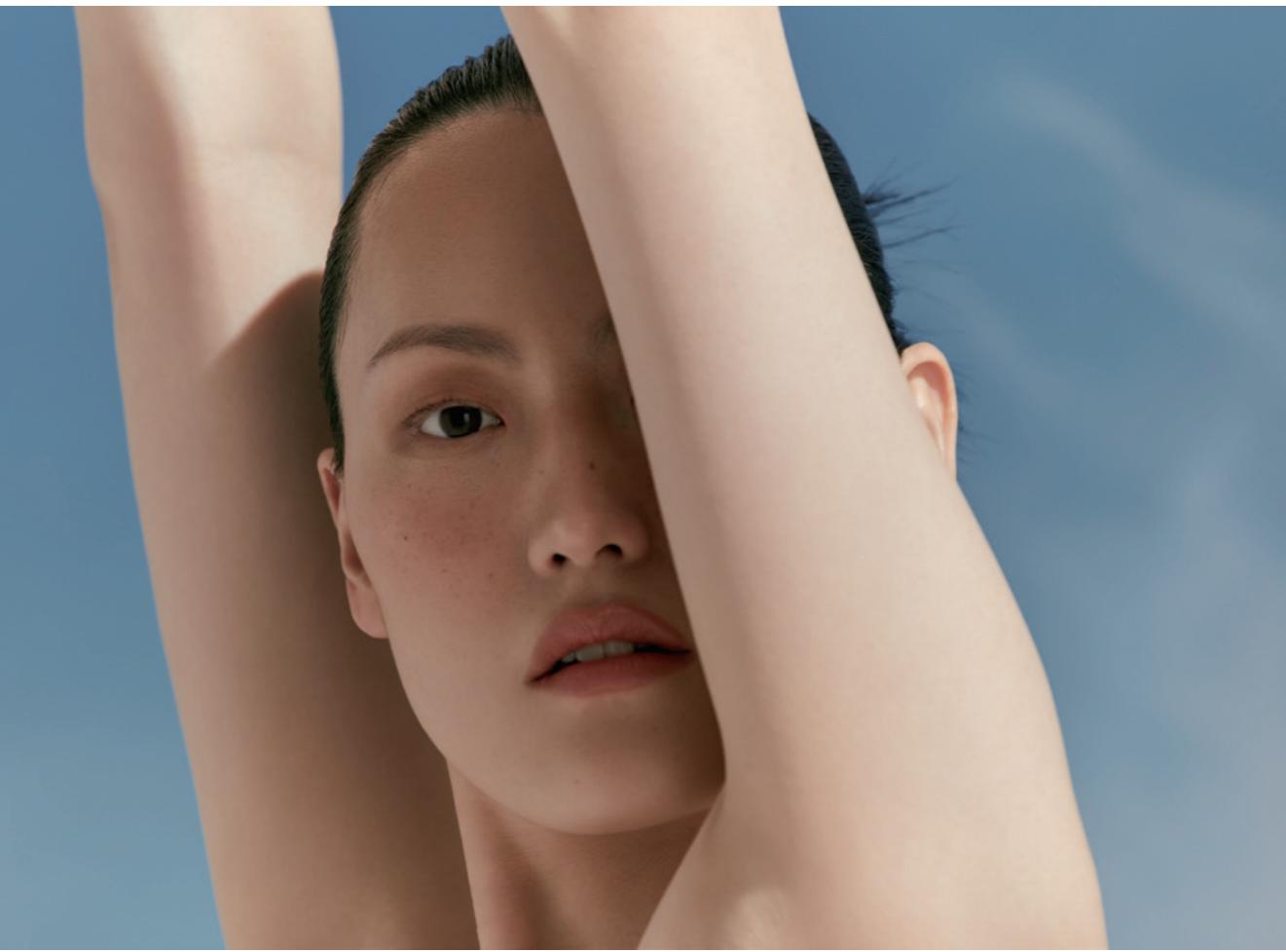
설화수 탄력영양크림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힘을 더해주는 크림. 잘 발리고
촉촉하게 마무리되어 사계절 내내 쓰기 좋다.
75ml, 11만원.

#3 뜨거워진 피부 달래기

피부의 평균 온도는 31~33°C. 이보다 온도가 높으면 피부는 모세혈관을 확장해 열을 배출하는데, 이때 모공이 확장되고 콜라겐 분해 효소가 작용해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진다. 하지만 뜨거운 피부를 급하게 식히겠다고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을 쓰는 것은 금물. 당장 온도는 낮아질 수 있으나 피부가 건조해진다. 이보다는 시원하게 보관한 토너를 적신 화장솜을 얼굴에 올려두거나 미스트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분사해 수분 공급과 동시에 열을 식히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미스트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에센스
미스트. 200ml, 12만원.



#4 자외선 차단제를 가까이, 더 가까이

1년 내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지 만, 특히 지금부터 6개월간은 하루도 빼놓지 말고 쟁여 발라야 한다. 개봉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을 외출 30분 전에 꼼꼼히 바르자. 성인 기준으로 집게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양을 발라야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이기 때문에 2~3회에 걸쳐 나눠 바르는 것이 좋다. 세안 직후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보다 스킨케어를 끝낸 뒤 발랐을 때 더 균일하게 도포되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으므로 아무리 촉촉한 자외선 차단제라 할지라도 스킨케어 단계를 다 마친 후 마지막에 바를 것. 땀과 물에 강한 제품을 고르는 것은 기본이다.



1. 헤라 선 메이트 레포츠 프로 워터프루프 SPF50+/PA++++ 퓨트로 컬렉션 (6월 한정)

바이자마자 피부에 자외선 차단막을 형성해 땀이나 물이 묻어도 지워지지 않는 자외선 차단제.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촉촉하게 발려 산뜻하게 흡수된다. 70ml, 3만6천원.

2. 헤라 선 메이트 프로텍터 SPF50+/PA+++ 퓨트로 컬렉션 (6월 한정)

자외선을 차단하고 자연스러운 윤광을 더해주는 메이크업 베이스겸용 선 프로텍터. 자외선과 도시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젊고 힘 있는 피부로 유지해준다. 50ml, 3만8천원.

* 선 메이트 퓨트로 컬렉션 : 1976년 아모레퍼시픽의 하계 캠페인 '오라~ 태양의 품으로'를 활용한 퓨트로(futro) 품 디자인 리미티드 컬렉션

#5 내 남자의 피부 챙기기

남자들은 보통 여름이 되면 넘쳐나는 피지 탓에 피부가 기름지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바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 특히 40대 전후가 되면 피지 분비량이 혼자히 줄고 수분 보유량도 함께 줄어드는데, 짧은 시절을 생각하며 스킨케어를 하지 않거나 지성용 스킨케어를 고수한다면 노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변화는 클렌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피부가 찜찜하다고 비누로 마구 씻어내는 것은 금물. 최소한의 유분과 수분은 남겨두고 노폐물과 먼지만 제거해줄 품 클렌저를 써야 한다. 하루에 몇 번씩 세안한다면 낮에는 물로만 세안하고 아침저녁으로 품 클렌저를 쓰는 것이 좋다. 세안 후에는 번들거리거나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피부에 힘을 더해줄 스킨케어를 잊지 말 것. 기능성 울인원 제품이 제격이다.



1. 헤라 음므 블랙 퓨리파잉 클렌저 면도와 세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산뜻한 품 클렌저. 125g, 2만5천원.
2. 프리메라 맨 오가니언스 트리트먼트 워터 피부를 보호하고 영양을 부여하는 산뜻한 품. 180ml, 3만원.

#7 제대로 면도하기

매일 하는 면도가 남성 피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면도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피부의 천연 보호막이 손상되어 메마르고 윤기를 잃기 쉽다. 한마디로 노화로 가는 지름길에 들어서는 것. 노폐물이 집균의 번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면도 전에 반드시 세안을 할 것. 45°C 정도의 따뜻한 물에 타월을 담갔다가 짜서 찜질을 하거나 세면대에 뜨거운 물을 받아 증기를 써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후 쉐이빙 품이나 클렌징 품을 발라 면도를 하는데,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면도를 하면 피부 자극이 적다. 전기면도기를 쓴다면 면도 전 피부에 스킨을 발라 살균한 뒤 면도기를 피부와 직각을 이루게 세워 천천히 깎는다. 마무리로 보습 효과가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헤라 음므 블랙 퍼펙트 플루이드

에너지를 불어넣어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피부로 가꿔준다. 칙칙한 피부 톤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는 진정 보습 이중 기능성을 울인원 플루이드. 110ml, 6만원.



#7 몸속부터 에너지 채우기

술을 더워지기 시작하는 요즘, 벌써부터 입맛과 활동력이 떨어졌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본격적인 인수분석 기관은 체력을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몸속에 에너지를 채워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힘을 낼 목적으로 열량이 높은 보양식을 찾아 먹기도 하지만, 운동량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된다. 몸이 뜨거워질수록 몸속은 오히려 차가워져 소화기관을 포함한 내장 기관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밥은 가볍게 먹고 부족한 에너지와 영양소는 이너 뷰티 제품으로 채우는 편이 좋다. 이 시기에 딱 좋은 것이 홍삼. 홍삼을 제대로 담아 몸속 에너지를 복돋우는 제품이면 금상첨화다.



바이탈뷰티 명작수
인삼의 뿌리와 열매(부원료)를 모두 담은 프리미엄 홍삼 앰플. 건강한 생기를 되돌려주고 피로해소, 항산화,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0g×50앰플, 26만원.

#8 지독한 체취 빼기

다행히 한국인은 체취가 적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미망 방심할 수는 없다. 체취의 주원인은 남성호르몬으로, 남성은 청소년기와 40대 이후에, 여성은 여성호르몬이 감소하고 대사 기능이 떨어져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할 때부터 체취가 강해진다. 거기에 땀과 피지가 산화해 시큼한 냄새까지 더해지면 악취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체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늘 등 향신료나 양파 등 냄새가 강한 재료가 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는 것 이 바람직하다. 출연이나 음주를 즐이고 꾸준히 운동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화로 인한 체취의 원흉이자 집합소 격인 귀 뒤와 목뒤도 매일 세안할 때마다 깔끔하게 씻어야 한다.



MODEL: LEE HYE SEUNG, MAKEUP: JAMIE YOUN, LEE YOUN SUN, KANG JEONG CHANG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9 향긋한 향기 더하기

체취를 없앴다면 향긋한 향을 더할 차례. 체취를 없애지 않고 그 위에 향수를 짙게 뿌리면 자칫 더 역한 향이 날 수 있으므로 향수를 쓰기 전 체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체취 감소에 특화된 성분을 함유한 향수도 출시되고 있으니 참고할 것. 향수는 손목보다는 손등에 뿌린 후 비비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반소매 티셔츠를 입었다면 팔목에 뿌려도 된다. 향수의 향을 좀 더 오래 즐기고 싶다면 산뜻한 향의 바디로션과 레이어링하는 것도 좋다. ☺

프라도어 바디 오드 퍼퓸 10 기프트 세트
체취 제거 특화 성분을 함유해 좋지 않은 향을 지우고, 은은한 장미 향을 남긴다. 100ml+15ml, 6만7천원.

피부에 선사하는 자연의 힘

자연의 힘은 신비롭고 위대하다. 아름다움에 대한

영감의 원천인 대자연의 넘치는

생명력과 강력한 에너지를 피부에 고스란히

전하는 뷰티 아이템과 서플리먼트.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LEE MI KYUNG



설화수 진설명작에센스. 40ml, 80만원.

설화수 진설명작크림. 60ml, 80만원.

#프레스티지안티에이징
#매끈하고활력넘치는젊은피부
#액티브인삼셀™

설화수 진설명작에센스 & 진설명작크림

영험한 기운을 지닌 영지버섯과 액티브인삼셀™에서 찾은 무한한 젊음의 에너지가 피부를 절정의 상태로 끌어올려
팽팽하고 탄탄하게 올라붙은 힘 있는 피부를 완성하는 프레스티지 안티에이징 케어 드uo.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별한 영지버섯에서 얻은
에너지가 피부총을 견고하게 강화해주며, 설화수 50년 인삼 연구의 집약체로 인삼 세포를 최신 바이오 기술로 오롯이 담아낸
액티브인삼셀™은 피부 노화의 흔적을 효과적으로 지워준다.



아모레퍼시픽 빈티지 싱글 익스트렉트 에센스 1000일 에디션

차나무 생장에 최적의 기후였던 2017년, 제주 돌송이차밭에서 수확한 그레이트 빈티지 티 리프™를 1000일간 자연 발효하고 저온 숙성하여 원액
그대로 추출해 담은 진귀한 에센스. 너리싱 리퀴드가 피부에 착 감기듯 밀착 흡수되어 빈티지 에센스 대비 6배 빠르고 1.45배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발휘한다. 다각도 안티에이징 효능으로 피부 속부터 겉까지 촘촘하게 케어하여 피부의 속당김, 치밀도, 탄력, 결, 윤기를 개선하고,
탄탄하고 매끄럽게 빛나는 절정 피부를 완성해준다.

프리메라스킨 릴리프 UV 프로텍터 EX SPF50+ PA++++. 50ml, 3만원.

#수분베이스자차
#블루라이트차단
#촉촉하고산뜻한선크림



프리메라 스킨 릴리프 UV 프로텍터 EX SPF50+ PA++++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UVA와 UVB 등 자외선과 블루 라이트 등 외부 유해 자극을 동시에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

동물성 원료와 광물성 오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배제하고 녹차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

풍부한 수분감으로 수분 크림을 바른 듯 촉촉하고 생기 있게 피부를 밝혀주며 자연스럽고 맑은 피부 톤으로 보정해주는 효과가 있다.

땀과 피지를 흡착해 산뜻하게 마무리되고 1차 세안으로 클렌징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구딸 파리 에뚜왈 둔 누 & 뫄뉴 드 스와레

실크 스카프를 두른 에뚜왈 둔 누는 아이리스, 로즈, 라즈베리가 어우러진 매혹적인 향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

'하룻밤만 빛나는 별'이라는 뜻처럼 비밀스러운 립스틱 향에 달콤한 숨결이 더해져 은은하고 관능적인 여운을 남긴다.

'이브닝 드레스라는 뜻의 뫄뉴 드 스와레는 우아하면서도 달콤한 구르망 시프레 계열의 향수로, 바디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모습처럼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의 향기를 발산한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가볍고 산뜻한 초여름 메이크업

땀과 피지가 서서히 폭발할 조짐을 보이는데, 마스크까지 써야 하는 요즘.

산들거리는 초여름 바람처럼 산뜻하고 싱그러운 여름을 위한 메이크업을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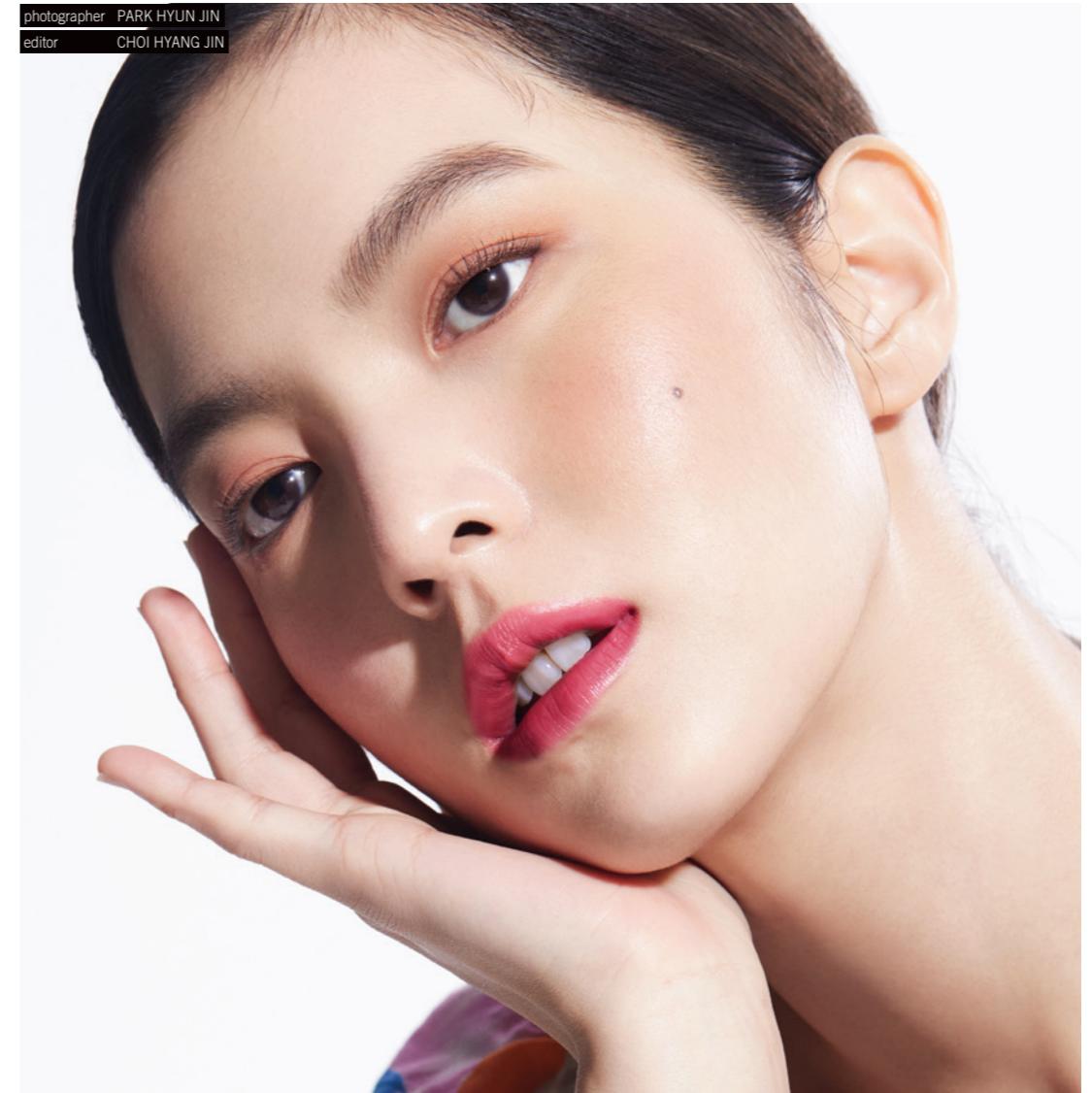


헤라 선 메이트
엑설런스 SPF50+/
PA+++.
40ml, 4만5천원.
헤라섀도 듀오. #05
클래시, 4g, 3만8천원.
헤라루즈 헐릭 #401
누드 브릭, 3g, 4만원.

FACE 톤업 기능을 겸비한 헤라 선 메이트 엑설런스를 얼굴에 얇게 펴 바른 뒤, 잡티는 헤라블랙 컨실러 스프레드 커버로 가볍게 커버한다.

EYES 헤라섀도 듀오 #05 클래시 중 베이스 컬러를 아이홀에 발라 음영을 표현한다.

LIPS 헤라루즈 헐릭 #401 누드 브릭을 입술에 꽉 채워 발라 마무리한다.



LOOK 2. URBAN BREEZE

하루 종일 숨 쉬듯 편안하면서도 완벽한 피부 바탕을 연출해주는 스킨케어링 베이스.

메이크업은 가벼우면서도 피부가 좋아 보이고,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효과까지 볼 수 있으니 금상첨화!



헤라블랙 컨실러 닷
커버, 5g, 4만원.
헤라섀도 듀오.
#02 이지고잉, 4g,
3만8천원.
헤라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138 베티,
7ml, 3만7천원.

FACE 헤라블랙 컨실러 얼굴에 얇게 발라 매끈한 피부결을 연출하고, 잡티가 눈에 띠는 부위에는 헤라블랙 컨실러 닷 커버를 살짝 발라 톡톡 두드려준다.

EYES 헤라섀도 듀오 #02 이지고잉 중 포인트 컬러를 아이라인부터 눈두덩이까지 아주 연하게 발라 사랑스러운 컬러감을 입힌다.

LIPS 헤라센슈얼 프레쉬 누드 틴트 #138 베티를 입술에 꽉 채워 발라 마무리한다.



LOOK 3. SEOUL ROSE

살짝 톤이 다운된 로즈 컬러는 사랑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눈과 볼에 같은 톤의 컬러를 사용하면 보다 트렌디하고, 메이크업도 한결 가벼워 보인다.



헤라 블랙 쿠션 SPF34/
PA++, 15g×2, 6만원.
헤라섀도 듀오 #01
보니, 4g, 3만8천원.
헤라 센수얼 스파이시
누드 볼룸 매트.
#412 에티켓, 3.5g,
3만5천원.

FACE 헤라 블랙 쿠션을 얼굴 전체에 가볍게 발라 화장이 두꺼운 느낌 없이 완벽한 피부를 연출한다.

EYES 헤라섀도 듀오 #01 보니의 포인트 컬러를 눈가에 넓게 물들이듯 않고 가볍게 바르고, 마스카라를 듬뿍 바른다.

LIPS 헤라 센수얼 스파이시 누드 볼룸 매트 #412 에티켓을 입술에 바르고, 손가락에 살짝 묻혀 뺨 중앙부터 광대뼈를 물들이듯 톡톡 두드리며 펴뜨린다.



LOOK 4. SUN BREEZE

태양에 그을린 듯한 건강한 태닝 룩은 오직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메이크업. 글로시한 텍스처를 더해야 더욱 자연스럽고 섹시한 느낌을 살릴 수 있다. 헤라 아이 엠 멀티 팔레트를 활용하여 디테일한 질감 표현에 도전해보자.



헤라 아이 엠 블랙 쿠션:
23N1, 15g×2, 6만원.
헤라 아이 엠 멀티
팔레트, 9g, 6만원.
헤라 아이 엠 센수얼
파우더 매트 #268
페이브, 5g, 3만5천원.

MODEL: KIM JI YOUN, MAKEUP: JAMIE YOUN, LEE YOUN SUN, KIM DONG HYUN(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위기의 피부를 위한 구세주

외부 유해 환경과 스트레스, 거기에 마스크까지. 여러 가지 자극에 시달린 피부는 쉽게 민감해지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자. 단 한 번만 빨라도 지친 피부를 힘 있게 되살려주는 설화수 자음생앰플이 있으니까.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설화수
자음생앰플

1 피부 노화의 근본에 작용하는 진세노믹스™

설화수 자음생 라인의 핵심 성분은 진세노믹스™. 진세노믹스™는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인삼 성분 중에서도 특히 피부 노화 완화에 뛰어난 진귀한 사포닌만을 골라 6천 배 이상 농축해 만든 강력한 활성 뷔티 사포닌 성분으로 자음생앰플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2 처음 사용하기 직전 활성화로 단숨에 퍼지는 에너지

설화수 자음생앰플은 처음 사용하기 직전에 보틀 안에 담긴 진생베리와 진세노믹스™ 등의 유효 성분이 활성화돼 효능 성분이 보다 신선하고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되도록 고안했다. 인삼 열매처럼 고급스러운 붉은빛을 띠는 포뮬러가 유효 성분이 활성화되었다는 신호!

3 피부 진정을 넘어 놀라운 피부 개선 효과

설화수 자음생앰플을 사용한 고객의 100%가 단 한 번 사용으로도 자극 진정, 피부 장벽 강화, 수분량 증가, 피붓길 개선, 윤기 증진 효과를 경험했다.¹⁾ 또한 3주간 꾸준히 사용한 실험 참가자의 피부를 관찰한 결과, 탄력 증진, 주름 완화, 모공 축소 등 피부가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²⁾ 즉각적인 피부 문제 해결은 물론 안티에이징 효능까지 탁월하다는 뜻.

*자음생앰플 인체 적용 시험
시험 대상: 20~49세, 시험 기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주)
1) 인체 적용 시험 참가자 중 개선된 피험자 비율(사용 직후 기준), 2) 사용 3주 후 기준

- 추천 포인트
- POINT 1**
진생베리와
진세노믹스™의
강력한 에너지
- POINT 2**
신속한
회복 케어
- POINT 3**
단숨에 퍼지는
에너지 충전

“푸석하고 거칠던 피부가 단
한 번 빨랐을 뿐인데 매끄럽고
부드럽게 변했다.”

-마리끌레르 뷔티 에디터 김상은

“입 주변에 생긴
트러블이 단번에
가라앉았다.”

-뷰티 컨텐츠 디렉터 이미경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화장이
잘 먹을 뿐 아니라 고급스러운
광채가 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설화수 자음생앰플
진생베리와
진세노믹스™가 처음
사용하기 직전에
활성화되어 단번
빨라도 외부 자극에
시달린 피부를
개선해주는 레스큐 앰플.
20g, 13만원.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포솜
BX 펩타이드, 리얼 콜라겐,
EGF 등 탄력 증진 기능이
탁월한 성분에 다중총
리포솜 기술을 적용한
탄력 에센스. *효능 주입
40ml, 12만원.

AGE AWAY
AESTHETIC
BX83 LIPOSOME
BX PEPTIDES+REAL COLLAGEN

ADVANCED CELL SCIENCE™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크림
콜라겐이 들어 있는
농밀한 포뮬러가 피부를
촘촘하게 감싸 피부
탄력을 탱탱하고 팽팽하게
살려준다. *탄력 고정
50ml, 12만원.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아이크림
히알루론산 보습막이 건조한
눈가에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리얼 콜라겐이
눈매를 쫀득하고 탄력 있게
잡아준다. * 눈가 탄력
25ml, 10만원.

피부 탄력 전문가

헤라의 대표 안티에이징 라인인 에이지 어웨이에 에스테틱 전문가의 노하우를 더해

탄생한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쉽게 개선되지 않던 피부 탄력을 확실히 증진시켜줄 것이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1
에스테틱 전문가가 엄선한 핵심 탄력 성분
BX 펩타이드, 리얼 콜라겐, EGF

BX 펩타이드는 주름을 유발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막아 주름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 주름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성분. 리얼 콜라겐은 이를 그대로 피부 탄력의 핵심 성분인 인체의 콜라겐을 99% 유사하게 모사한 성분으로 피부에 보다 친화적으로 작용해 탄력 코어층을 탄탄하게 유지해준다.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EGF 중 쌀에서 배양해 안전하면서도 피부 재생 효과를 발휘하는 쌀 EGF가 함유되어 있다.

추천 포인트

POINT 1

헤라셀 사이언스의
집약체

POINT 2

에스테틱 전문가의
노하우

POINT 3

콜라겐, EGF 등
탁월한 탄력 개선 성분

2
단계별 맞춤 솔루션

탄력 핵심 성분 외에도 워터, 에멀젼, 에센스, 아이크림, 크림의 5단계 제품에 꼭 맞는 맞춤 성분이 들어 있어 스킨케어 단계의 효능을 배가한 것이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의 강점이다.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83 리포솜은 라인의 핵심 제품답게 유효 성분이 보다 피부 깊숙이 흡수되도록 고안한 BX83% 리포솜 기술을 적용했으며, 건조한 눈가를 위한 아이크림에는 히알루론산, 크림에는 리얼 콜라겐과 저분자 콜라겐을 배합해 함유했다.



3
제품 효능을 높여주는 특별한 마사지법

제품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만의 특별한 마사지법을 고안했다. 크림을 듬뿍 바르고, 카운셀러의 가이드에 따라 마사지하면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한 탄력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헤라 에이지 어웨이 라인
제품 중 단연 최고다.”

-뷰티 컨텐츠 디렉터 최향진

“단 하루만 빌라도
피부가 팽팽하게
차오르는 느낌.”

“풍부한 영양감이
푸석한 피부를 윤기 있게
정돈해준다.”

-〈마리끌레르〉뷰티 디렉터 윤휘진

“풍부한 영양감이
푸석한 피부를 윤기 있게
정돈해준다.”

-뷰티 컨텐츠 디렉터 김희진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비타민 파워

비타민 화장품 명가, 아이오페의 20여 년 비타민 C 연구를 집약한 역작이 탄생했다. 최대 함량비타민 C로

더 빠르고 강력한 안티에이징 파워를 선사할 아이오페 에이스 비타민 C30이 그 주인공이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아이오페 에이스 비타민 C30



순수 비타민 C 최대 함량 30%

항산화, 주름완화, 탄력증진, 잡티 개선 등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변질되기 쉽고 피부 자극도 높아 화장품으로 안정화하기 까다로운 성분, 비타민 C. 아이오페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비타민 C를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한 결과, 순수 비타민 C를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중 최대 함량인 30% 담은 에이스 비타민 C30을 내놓았다.



혁신적인 제형과 용기

비타민 C를 30%나 함유하고도 피부 자극이 적고 사용감이 부드러운 것은 아이오페만의 특허받은 비타민 C 안정화 기술인 Dual Vita C Formula™ 덕분. 순수 비타민 C를 오일로 감싼 이중상 제형으로 비타민 C의 산화를 막는 동시에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공한다. 용기 또한 특별하다. 외부 공기의 접촉을 차단하는 혁신적인 용기에 담아 처음부터 끝까지 비타민 C 성분의 변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더 강력한 항산화를 위한 석류, 페룰산, 비타민 E

에이스 비타민 C30에는 순수 비타민 C 외에도 항산화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석류 추출물과 페룰산, 그리고 비타민 C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되는 비타민 E 등이 함유되어 피부 노화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추천 포인트

POINT 1

비타민 C 최대 함량

POINT 2

편안한 사용감

POINT 3

석류, 페룰산 등의 항산화
시너지



아이오페 에이스 비타민 C30

순수 비타민 C를 최대
함량인 30% 담아
탄력 있고 팽팽한
피부로 가꿔주는 고강도
안티에이징 앰플.
23g, 8만원.

“피부가 민감한데도
파끔거리는 등의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일주일만 빨라도 안색이
환해진다. 파운데이션 호수를
바꿔야 할 정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아영

“비타민 C 세럼 특유의
미끈거리는 느낌이 없어
대만족.”

-〈마리끌레르〉뷰티 에디터 김현민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건강한 피부 관리의 시작, 헤라의 새로운 클렌저

봄철뿐 아니라 1년 내내 미세먼지가 극심한 요즘, 깔끔하고 섬세한 클렌징은

스킨케어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로 자리 잡았다. 헤라가 녹차 유래 유산균 발효용해물로
피부 건강까지 지켜주는 새로운 클렌징 라인을 선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SURVEY RESULT

헤라 클렌저 7일 사용 결과

시험 대상: 25~29세 여성 37명 / 시험 기간: 3월 15일~21일(7일간 사용 결과)
시험 기관: (주)뷰티링크파트너스

헤라 릴렉싱 딥 클렌징 오일 7일 사용 결과

100% 사용 후 피부가 매끈해진 느낌이다.

97.3% 사용 시 피부에 자극이 적다.

97.3% 메이크업이 잘 지워진다.

94.3% 룰링 시 느낌에 만족한다.

91.9% 사용 시 눈에 자극이 적다.

91.9% 행군 후 얼굴이 땅기지 않고 편안하게 마무리된다.

피부 본연의 건강을 지켜주는 클렌징

메이크업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 미세먼지가 극심한 요즘에는 메이크업뿐 아니라 피부와 모공 속에 달라붙은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까지 깔끔하게 제거하는 것이 클렌징을 넘어 스킨케어의 핵심이다. 미세먼지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염증과 피부 노화를 유발하기 때문. 게다가 장기간의 마스크 착용으로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가 민감해진 사람이 늘어나며 순한 저자극 클렌저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헤라는 이런 클렌징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피부 본연의 건강을 지키고, 메이크업과 노폐물, 미세먼지는 말끔하게 제거하는 마일드한 클렌징 라인을 출시했다.

녹차 유래 유산균 발효용해물로 피부 바탕을 건강하게

새로운 헤라 클렌징 라인의 핵심 성분은 녹차 유래 유산균 발효용해물, 10여 년의 연구 끝에 녹차에서 찾은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은 세계 최초로 특허받은 녹차 유산균으로 피부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바로잡아 피부 본연의 건강을 지켜준다. 또한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PEG계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동물성 원료, 광물성 오일, 합성색소 등 유해성 논란 성분을 배제한 세심함도 돋보인다.

아무리 좋은 성분을 넣었다 하더라도, 클렌징의 본래 목적인 세정력이 떨어지면 무용지물. 오일, 풀, 워터, 아이 앤 립 리무버 4종으로 구성한 헤라 클렌징 라인은 제품마다 최적의 조합으로 자극 없이 메이크업과 노폐물, 불필요한 피지 등을 깨끗하게 씻어내 촉촉하게 마무리된다. 먼저 헤라 릴렉싱 딥 클렌징 오일은 피지 유사 구성 성분을 함유해 부드럽게 룰링되며, 워터 프렌들리 유화 시스템을 갖춰 물로만 행궈도 산뜻하게 마무리된다. 헤라 크리미 클렌징 품은 녹차 유래 유산균 발효용해물 외에 트레할로스 성분을 함유해 촉촉한 보습감을 선사하며, 양이온 폴리머를 사용해 모공 속 미세먼지까지 깔끔하게 제거해준다. 크리미한 미세 거품이 선사하는 극강의 부드러움은 덤. 헤라 리프레싱 토닉 클렌징 워터에는 카렌듈라 추출물이, 퍼페팅 아이 앤 립 리무버에는 아르테미시아(황해쑥잎수) 추출물이 들어 있어 피부를 진정시킨다. 무엇을 발라도 피부가 거칠고 자꾸 민감해진다면 클렌징 라인부터 순하면서 진정 효과는 탁월한 제품으로 바꿔보기 바란다.

헤라 크리미 클렌징 품 7일 사용 결과

100%
사용 시 피부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다.

97.3%
거품이 부드럽게 룰링된다.

97.3%
피부결이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이다.

94.6%
순하고 부드럽게 행궈진다.

91.9%
메이크업이 깨끗이 행궈지는 느낌이다.

91.9%
거품이 출출하고 조밀하다.



헤라 릴렉싱 딥 클렌징 오일
200ml, 4만원/
400ml, 6만5천원.

HERA CLEANSING LINE-UP

녹차 유래 유산균 발효용해물로 피부 속 마이크로바이옴까지 건강하게 가꿔주는 헤라의 새로운 클렌징 라인을 소개한다.



**RELAXING DEEP
CLEANSING OIL**
PROBIOTICS*+ARTEMISIA



헤라 릴렉싱 딥 클렌징 오일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며,
메이크업과 미세먼지, 피지와 묵은
각질까지 산뜻하게 씻어낸다.
200ml, 4만원 / 400ml, 6만5천원.



헤라 크리미 클렌징 폼
보습 성분이 함유돼 세안 후에도
촉촉한 보습감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보습 클렌징 폼.
200g, 3만원.



헤라 퍼펙팅 아이 앤 립 리무버
수용성 및 유용성 메이크업을
불필요한 자극 없이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
125ml, 2만2천원.



헤라 리프레싱 토닉 클렌징 워터
노린스 타입 미셀라 클렌징 워터로
카렌들라 추출물이 피부에 건강한
생기를 부여한다.
200ml, 3만7천원.

헤라 클렌징 라인을 추천하는 이유

POINT1

녹차 유래 유산균
발효용해물로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균형까지 조절

POINT2

헤라만의 기술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포뮬러

POINT3

피부 유해 성분을
배제한
순한 처방

HOW TO USE

헤라 릴렉싱 딥 클렌징 오일에 핸들링 테크닉을 더하면 보다 효과적인 클렌징과 동시에 마사지 효과까지 볼 수 있다.

다음 단계를 따라 클렌징 시간을 마사지 시간으로 바꿔보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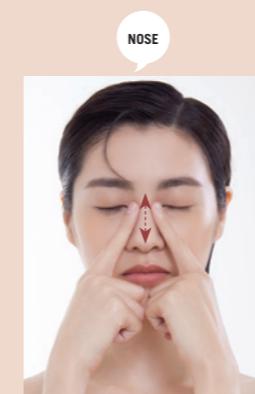


물기가 없는 얼굴에 헤라 릴렉싱
딥 클렌징 오일을 바른 뒤, 양손
검지, 중지, 약지를 모아 이마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둘립니다.

양손 검지, 중지, 약지를 모아 이마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둘립니다.

양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원을 그립니다.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바깥에서
안쪽으로 교차해 에스(S) 자를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MODEL: LEE RYE, MAKEUP: JAMIE YOUN, LEE YOUN SUN,
KIM DONG HYUN(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1. 양손 검지로 콧대를 위아래로
쓸어준다.
2. 검지로 콧방울 부위를 위아래로
여러 차례 둘립니다면 블랙 헤드가
제거되는 동시에 혈액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



검정콩 심은 데 건강한 모발 자란다

모발과 두피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 중 가장 믿음직한 것은, 단연 검정콩 추출물이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LEE SUNG JIN



매년 여름이 되면 힘을 잃고 처지는 모발과 예민해지는 두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강한 자외선이 두피를 자극하고, 습도가 높은 데다 땀과 피지 분비까지 느는 통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어 비듬이나 각질, 지루성 두피염, 두피 여드름 등 트러블이 곤잘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모발은 생기가 없고, 모발 끝까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끊어지거나 끝이 갈라지기 쉽다. 이같은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여름부터 미리 두피와 모발에 힘을 길러둬야 한다.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찾는 것이 바로 검정콩이다.

검정콩은 양질의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해 모발과 두피를 건강하게 만든다. 영양가가 많은 콩 중에서도 특히 검정콩은 노화 방지 성분을 일반 콩보다 4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어두운색 식품에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콜레스테롤을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관을 보호하는 등의 효능을 보인다. 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검정콩에는 총 9종에 달하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들어 있어 다양한 생리 활성 효과를 보인다. 탈모의 원인이 되는 산화스트레스를 줄이면 모발이 덜 빠지는 것은 당연지사. 이뿐 아니라 혈액을 맑게 만들고, 모세혈관을 확장해 맑은 혈액을 두피에 효과적으로 전달해 모발에 영양을 원활히 공급한다.

또한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더하는 비타민 B₆과 비타민 B₉를 우유에 비해 3배 이상 함유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르기닌과 시스테인도 풍부해 모발이 건강하고 힘 있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효과도 있다. 결

국, 빠진 모발을 다시 나게 하자는 못한다 할지라도, 탈모를 막고 모발과 두피의 건강을 개선하는데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그렇다면 많고 많은 검정콩 중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흑태, 서리태, 서목태(쥐눈이콩) 등 종류에 따라 단백질 함량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안토시아닌 함량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섭취하는 방법은 삶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볶으면 단백질 함량이 2~3%, 삶으면 6~7%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 함량이 중간 정도 되는 중지방 식품으로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으므로 하루 섭취량은 50g 정도가 적당하다.

식품으로 섭취하기 쉽지 않다면 검정콩 추출물을 함유한 샴푸나 세럼 등 두피·모발 케어 제품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 프리메라의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쿨링 샴푸는 검정콩 추출물에 탈모증상을 완화하는 녹차와 두피 장벽을 진정시키고 강화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더해 마치 스키케어를 하듯 두피와 모발을 관리할 수 있다. 려의 화윤생 뷰티풀에이징 헤어 오일 세럼은 검정콩과 인삼을 발효한 성분으로 만들어 모발을 단력 있고 부드럽게 개선하는 효과를 인정받으며 4백40만 병 이상 판매된(2012~2019년 화윤생 세정, 양모 라인 판매 수량 기준) 베스트셀러다. 또, 명품 생발효 인삼 샴푸는 아홉 가지 유익균과 브랜드 고유의 기술로 만들어낸 발효 인삼 성분에 영지버섯과 검정콩 추출물 등을 더해 두피 각질량 감소, 탈모 증상 완화, 정수리 모발 불亂감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인다. ⓪

TIP



1. 려 명품 생발효 인삼 샴푸 216시간에 걸쳐 발효한 인삼 성분에 국내산 검정콩, 어성초, 영지버섯 등을 더해 두피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한다. 400ml, 3만3천원.
2. 려 화윤생 뷰티풀에이징 헤어 오일 세럼 발효 미세 오일이 빠르게 흡수되어 모발을 단력 있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100ml, 2만5천원.
3. 프리메라 그린티 바이옴 스칼프 쿨링 샴푸 모발과 두피를 청량하게 만들고 영양을 공급해 탈모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산성 두피 샴푸. 380ml, 3만7천원.

싱그러운 그림 한 포기

식물분류학자 겸 화가 신혜우의 그림 속

식물들은, 사진과는 또 다른

생명력을 지닌 채 살아숨 쉰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지난 4월,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예술회관 4 층 전시관은 아름다운 식물들로 가득했다. 신혜우 박사의 <이웃집 식물학자의 초대, 봄꽃 봄> 전시가 열렸기 때문이다. 독특한 것은 전시장 한가운데를 채운 아름답고 싱싱한 꽃과 풀 보다 벽에 걸린 그림을 보며 감탄하는 관람객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식물학자이자 화가 신혜우 박사의 손끝에서 생명력을 덧입은 식물화들은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 늘 주변에 식물이 많았어요. 자연스레 관심도 생겼고요.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곧잘 그렸는데, 재미있게 늘 식물이 주인공이었어요. 집이나 사람보다 식물을 더 크게 그렸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가장 크게 그렸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식물학을 전공하면서도 늘 그림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모습을 눈여겨본 교수님이 어느 날 일본의 세밀화 도감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식물을 그리기 시작했죠.”

어린 시절 가장 좋아한 책이 <어린이 식물도감> 이었고, 여섯 살 때 동네 학교에서 자라는 동백나무 씨앗을 40개 넘게 가져와 집 마당 곳곳에 심었다는 그녀. 햇빛이 잘 드는 마른 토양, 큰 나무의 그늘이 있는 곳, 그늘이지만 나무가 없는 곳 등 다양한 조건의 장소에 씨앗을 심어 싹이 트는 것을 비교했다니 어찌 보면 식물학자의 길은 어릴 때부터 정해져 있었던 모양이다. 이와 더불어 늘 관심을 갖고 있던 화가의 꿈까지 이뤘으니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 주변의 친사와 인정이 따른 것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이 국내에 극히 드물었음에도 국내외를 오가며 노

력을 거듭해온 그녀는 자신만의 해석과 노하우가 담긴 식물화로 2013년과 2014년에 영국 왕립원예협회 최고 전시상, 2015년 스코틀랜드 왕립원예협회 최고 전시상, 2018년 영국 왕립원예협회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식물학이 전성기를 이루던 17~18세기의 고전 정신 스타일을 구현한 화가’라는 친사를 얻은 것도 그녀의 노력이 모여 만든 결과다.



@hyewoo_plant

신혜우

식물학을 연구하는 박사이자 식물을 그리는 화가.
독도 식물을 연구하는 국가 프로젝트부터
주변에 있는 식물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한 소규모 전시까지, 식물학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신혜우 박사는 식물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 전세계를 누비고
다닌다.



그녀가 그리는 그림은 식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과학의 일종이다. 현미경이나 사진기로 식물을 촬영하고 관찰해 남기는 것도 물론 의미 있지만, 그녀가 그린 그림은 식물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작가의 해석을 더한 '논문'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식물의 단면을 잘랐을 때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쉽지 않은 체관과 수관 등을 연구하고 찾아내 이를 함께 그리는 방식이다. 식물화는 식물을 처음 발견해 학계에 보고하는 논문의 필수 요건일 만큼 세밀하면서도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기가 쉽지 않다.

식물화를 그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많은 식물 관련 문헌을 연구하는 조사. 그릴 식물을 선택하면 그 식물을 채집하는 길고 지난한 과정이 이어진다. 예를 들어 10~30cm 크기의, 이삭이 달리는 식물을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그 평균인 20cm 크기의 것을 찾아내야 한다. 다 자란 식물의 크기를 줄이거나 작은 식물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찾아낸 식물을 꼼꼼히 관찰해 그림을 그리는데, 계절이 변하면서 변화하는 모습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1년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때도 있다. 어렵고 어찌 보면 지루한 순수 학문이라 요즘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멸종 위기 식물이 멸종하는 속도보다 식물 분류학자가 멸종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말이 업계에 오래된 농담처럼 돌 만큼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수는 그보다 더 적은 것인 현실. 지금은 '그림을 잘 그리는 어느 나라의 누구' 하면 전 세계 학자

들이 모두 알 정도다.

이 일은 단순히 작품 활동을 넘어 좀 더 큰 의의를 지닌다. 2016~2017년에 진행한 독도 식물 연구가 그 예.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주관으로 생물학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 울릉도·독도 연구 프로젝트였는데, 여기서 그녀는 독도 식물 7종의 전 생애 과정을 담은 그림을 완성했다. 뜻깊은 이 작업의 결과물을 통해 그녀는 국제적인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미국에서 전시를 열었다. 개인적인 작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식물을 연구하고 그리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해 강의하고 박물관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으며, 크고 작은 전시를 개최해 대중과 소통해온 것. 최근에는 2년 8개월 동안 참여했던 방송 내용을 정리해 <식물학자의 노트>라는 에세이를 발간하기도 했다. 논문이나 도감에 비해 친근한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싼 생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끌어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어온 활동이다.

신혜우 박사는 식물 외에도 살아 있는 모든 생물에 관심이 많다. 여유가 생길 때마다 산책을 즐기고, 정처 없이 걸어 다니며 주변 특히 자연과 생물을 눈에 담는다. 연구실은 현미경과 도감, 그림 도구, 표본 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떠날 땐 휴대전화만 갖고 다닐 정도로 자유롭게 떠도는 것을 즐긴다는 그녀. 생명을 향한 그녀의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 더 많은 한국의 식물들이 그녀의 그림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길 바란다. ⓧ



TIP

신혜우 박사가 추천하는,
관찰하기 쉬운 식물 3



브로콜리

특히 관찰하기 쉬운 식물 중 하나. 브로콜리가 수많은 꽃봉오리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작고 몽글몽글한 초록색 돌기 중 하나를 잘 살펴보면 꽃잎이 달려 있는 꽃봉오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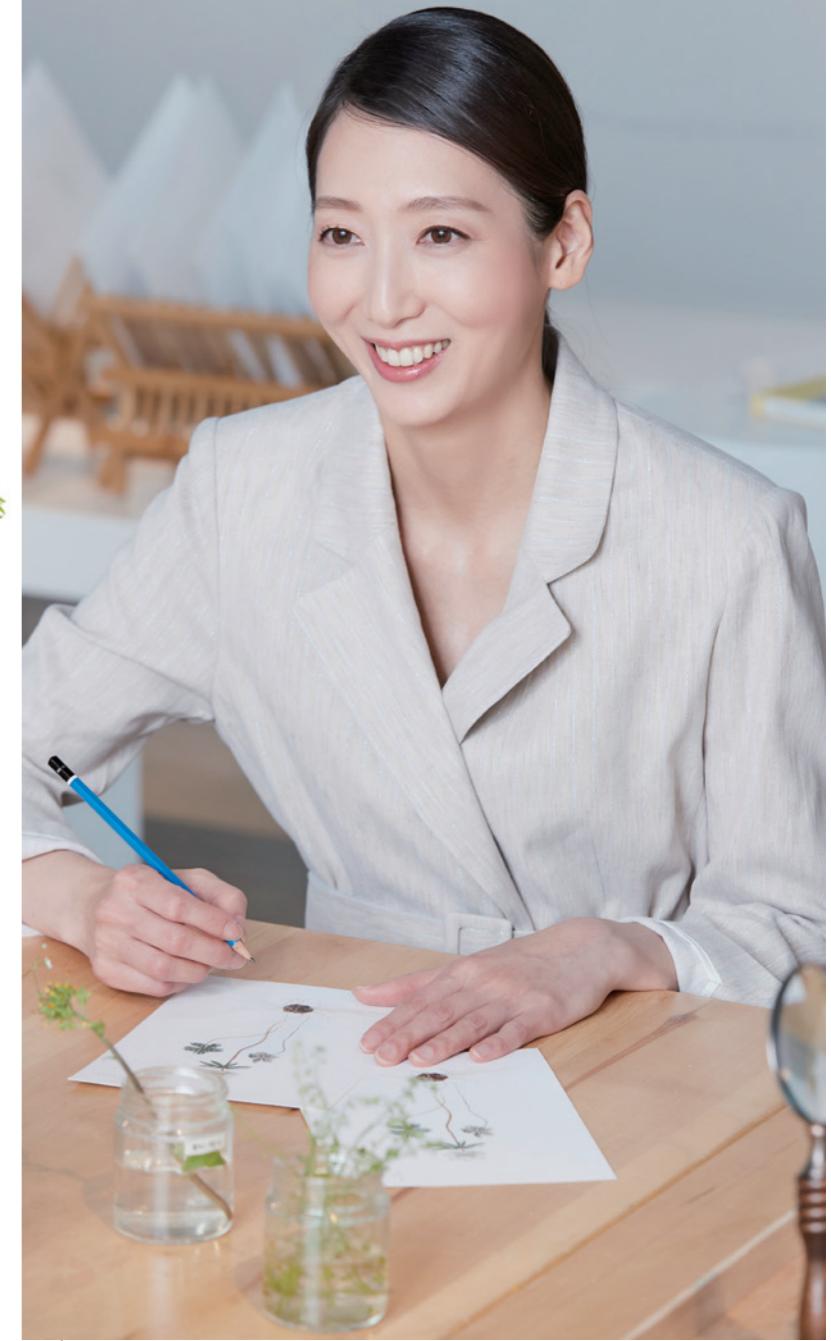
아까시나무

흔히 아카시아라고 알려진 나무. 향기로운 하얀 꽃 속을 들여다보면 중간에 얇은 초록색 암술을 발견할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아까시나무가 콩과 식물이라는 점. 초록색 암술을 세로로 죽갈라보면 그 안에 아주 작은 콩들이 있다.



토끼풀

작은 꽃들이 뭉쳐 피는 토끼풀. 우리가 한 송이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여러 꽃이 모여 있는 상태다. 아까시나무와 같은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작은 꽃 속의 초록색 암술을 찾아내 세로로 갈라보면 아주 작은 콩들을 발견할 수 있다. 비 오는 날 토끼풀 잎을 살펴보면 세 장의 작은 잎 중 하나 밑에 두 잎이 접힌 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손을 제대로 소독해주세요

버스에도, 음식점에도, 쇼핑몰에도 있는 그것, 바로 손 소독제다.

이제 선택이 아닌 생필품이 된 손 소독제. 과연 내가 쓴 그 제품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photographer CHOI MIN YOUNG(최민영)

editor LEE SUNG JIN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뒤 품절에 품절을 거듭했던 손 소독제가 이제는 춘추전국시대를 맞아 수많은 제품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용량과 관심이 급증한 만큼, 제대로 만들지 않은 불량품들도 팔리고 있는 상황. 그럴싸한 광고로 현혹하는 경우도 많아서, 얼마 전에는 성능을 과장한 과대 광고,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나 일반 공산품의 오인 광고 등 총 68건의 광고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세균을 없애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알려진 손 소독제를 쓰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 많고 많은 제품 가운데 올바로 만든 것을 찾아 안전하게 쓰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손 소독제의 대표적인 유효 성분은 에탄올과 이소프로필알코올, 염화벤잘코늄 등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유효 성분의 농도.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의 발표에 따르면 에탄올 농도가 60~80%일 때 살균 소독 효과가 가장 크고 이소프로필알코올은 농도가 70%인 제품을 골라야 한다. 손 소독제 속 유효 물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매개체를 파괴해 유전물질이 세포를 감염시키지 못하게 하는데, 알코올 함량이 낮으면 효과가 없고, 높으면 단백질 막이 빨리 굳어 침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번에 쓰는 양도 중요하다. 펌핑 제품을 기준으로 어른은 두 번, 어린이는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손 소독제가 마르기 전에 물로 헹구거나 휴지 등으로 닦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제형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손을 비비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외용으로만 써야 하고, 눈이나 구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TIP



프리메라 클린 앤 세이프 세니타이저 젤
15초 이내에 99.9% 강력 살균 효과를 보이는 의약외품.
유자 추출물과 알로에 추출물을 함유해 끈적이지 않고
촉촉하게 쓸 수 있으며 라임 향을 더해 알코올
냄새를 완화했다. 50ml, 7천원.

강 혹은 상처가 있는 곳에는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닿지 않게 해야 한다. 또 알코올 증기를 장기간 흡입하면 두통이나 자극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손을 얼굴에서 어느 정도 뗀 상태에서 쓰는 것도 좋다. 잊은 손 소독으로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 같다면 피부를 보호해줄 알로에 추출물 등을 함유한 제품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품은 통상적으로 1~30°C의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 40°C가 넘는 곳에 두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철 차에 보관하는 것은 금물. 또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로 반려동물의 몸을 닦는 것은 피하고, 반려동물이 이를 먹었을 때에는 바로 수의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간혹 기구의 표면이나 내부를 닦는 살균제를 분무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에어로졸 형태로 폐에 흡입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다. 얼마 전, 기구를 닦는 살균 소독제에 손 그림을 넣어 손 소독제로 오인하게 만드는 제품이 발각되기도 한 만큼 제품 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바른 제품을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의약외품 표기를 확인하는 것. 의약외품 범위지정(식약처 고시 제2019-8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친 제품만 의약외품이라는 문구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웹사이트 (www.mfds.go.kr)의 식약처 소개 ▶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 창구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등 제품 정보 검색 탭에서도 의약외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매트커버쿠션
#착불쿠션
#나피부같은초밀착커버



@kkangddol

좋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피부가 건성이라 망설였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커버력도 기대 이상!
요즘은 메이크업 후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매트 커버가 딱이에요.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빛을 발할 쿠션!



@guswnguddn

쿠션 장인 헤라, 블랙 쿠션은 진짜
좋아요.

◀ 헤라 블랙 쿠션

얇고 강력한 매트 커버로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피부를
완성해주는 쿠션 팩트. 마스크에 잘
묻지 않으며 다크닝이나 뭉치는 현상
없이 24시간 이상 강력한 보정 효과가
지속된다. SPF34/PA++, 15g×2, 6만원.

생생한 제품 평가

헤라 블랙 쿠션을 체험해 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소감.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LEE MI K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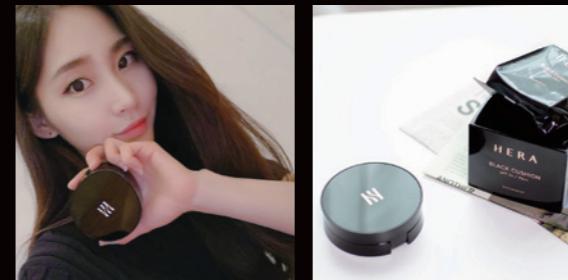
@nnvery

피부만큼은 짹찝 같아지고
메마른 거울이 싫어 화사한 봄
느낌을 유지할 수 있는 헤라 블랙
쿠션을 썼어요. 얼굴에 착 붙어
피붓결을 매끈하고 보송하게
정돈해주는 데다 마스크에
잘 물어나지도 않고 하루 종일
처음처럼 보송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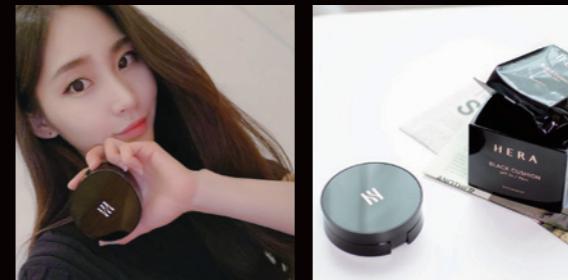
@_hhhdony_

이미 너무 유명한데
이번 리뉴얼로 더욱
고급스러워진 패키지에
밀착력과 커버력까지 더
완벽해진 헤라 블랙 쿠션.
요즘은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부응하는 쿠션이라 요즘
더 일리 쿠션으로 사용
중이에요.



@shubidub

올여름 내 쿠션으로 결정!
쿠션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히 밀착되고
하루 종일 다크닝이나
무너지는 현상 없이
유지돼 반했어요. 피부에
밀착하면서 핑싱되는
타입이라 마스크에 거의
묻어나지 않고, 얇게
바르면 진짜 내 피부처럼
이쁘게 표현돼서 강추해요.
꼭 테스트해보시길.



@rangvely_sarah

리뉴얼된 헤라 블랙 쿠션, 살짝
매트하고 보송하게 마무리되면서
밀착력이 좋아요. 커버력도
괜찮고 리뉴얼된 쿠션에 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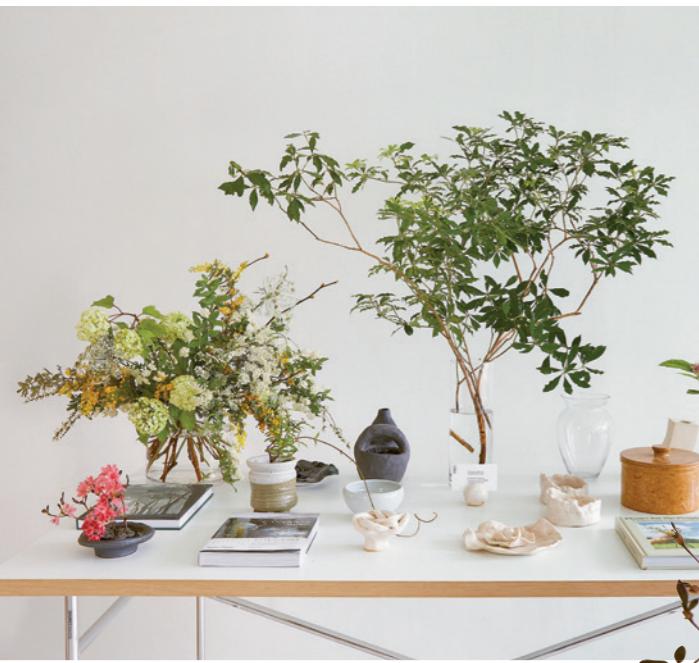
@cocodany92

피붓결을 보송하게 커버해주는
초밀착 쿠션, 시크한 블랙
패키지까지 맘에 들어요. 피부
화장은 여러 개 쓸 필요 없이 헤라
매트 커버 하나면 충분해.

@_s5321

밀고 쓰는 헤라 블랙 쿠션.
피부가 정말 예쁘게 표현돼요.
세미마트한 완성도와 지속력도
만족스럽고, 밀착력이 우수해
마스크에도 물지 않더라고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사용하기
좋아요. 고급스럽고 예쁜 패키지도
마음에 드네요. 쿠션 유목민들~,
헤라 블랙 쿠션에 정착하세요.





식물 상점

초록이 풍성해지는 6월. 잎이 무성해지고 꽃을 피우는 식물을 즐길 때다.

editor GO YEONG JIN



더소프터사이드

'더소프터사이드'는 디자인을 전공한 대표가 꽃과 식물을 디자인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흥미를 느껴 문을 연 습이다. 이곳을 방문할 때 편안한 마음을 갖길 바라는 마음을 상호에 담았다. 같은 식물이어도 화분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다고 생각해 화분을 신중히 고르는데, 도자기 작가에게 주문해 제작하기도 한다. 보기에도 아름다운 공간보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우선하며 미적 요소와 생육 환경의 조화를 늘 고민한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06 1층
영업시간 월~금요일 11:00~19:00, 토요일 11:00~18:00(일요일 휴업)
문의 @thesofterside_plants



1304

한남동 유엔빌리지 안쪽 깊은 곳에 자리한 '1304'.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둥근 벽면의 창을 배경 삼아 높인 키 큰 나무들이 이루는 전경이 이채롭다. 일조량이 확보되어야 하는 야생화와 관목을 주로 다룬는데, 일조와 통풍 조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문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함께 들 수 있는 리빙 오브제나 식물과 꽃을 기르는 데 참고할 서적도 판매 중이다. 1304라는 상호는 이곳 대표의 첫 작업실이던 집 호수를 따서 지은 것으로, 단순한 매장보다 '작업실'에 가까운 공간의 성격을 담고 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224 2층
영업시간 수~토요일 13:00~19:00
(일~화요일 휴업) 문의 @shop_1304



플랜트 소사이어티 1

'플랜트 소사이어티 1'은 수입 관엽식물을 선보이는 플랜트 숍이다. 식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전시나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해 식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 스페이스로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식물이 잠시 머물다 가는 사교클럽 같은 공간이라는 성격을 담아 '소사이어티'라고 이름 붙였다. 이곳의 모든 식물은 본갈이를 거쳐 잎부터 뿌리까지 모든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들여온다. 건강 상태만큼이나 중요시 여기는 것이 수형인데, 조형미가 잘 드러나는 것을 업선해 화이트 톤으로 통일한 벽을 배경으로 작품을 전시하듯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진열했다. 지난 해 10월 개최한 패트릭 토머스의 식물 패턴 판화 전시에 이어 올해 5월에도 재미있는 전시를 준비 중이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 26길 24 영업시간 수~일요일 14:00~20:00
(월~화요일 휴업) 문의 @ps1.official



플라워샤워

'플라워샤워'에는 50~60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나무가 많다. 식물을 잘 못 키우는 사람들도 간단한 관리 과정에 오래 들 수 있는 반려 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수형과 색이 저마다 다른 수많은 식물 사이에서 '선'에 집중해 외형적으로 균형감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상태인지 면밀히 따져들여온다. 작은 애생 초목과 외에 큰 관엽식물을 활용한 공간 컨설팅도 진행하는데, 장소의 성격이나 환경적 제약,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적합한 품종을 알려준다.



파운

마감이 노출된 천장과 오래된 벽돌을 살린 '파운'의 쇼룸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모든 생물이 흙을 터전으로 자란다는 점에 착안해 상호도 '옅은 흉갈색'을 뜻하는 'fawn'으로 정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공간은 파운이 소개하는 꽃이나 식물과 닮아 있다. 산책하며 쉽게 볼 수 있는 애생화를 다루는데, 독특한 수형이나 무늬가 신기한 잎을 가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다양한 꽃과 구근식물을 활용한 정원 만들기 클래스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식물에 중점을 둔 가드닝 클래스도 열 계획이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46길 26 1층
영업시간 수~금요일 13:00~19:00, 토요일 12:00~18:00(일~화요일 휴업)
문의 @fawnseoul_plant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길 7-14 1층
영업시간 화~일요일 13:00~19:00(월요일 휴업)
문의 @flowershower_plants



아름다움은 젊지 않다

나이로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있을까? 다양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설화수의

'아름다움은 자란다' 캠페인을 응원하며, 패션 매거진 <마리끌레르> 편집장이 편향된 것대로

재단할 수 없는 여성의 아름다움에 관한 에세이를 보내왔다.

editor AHN SO YOUNG

MZ세대와 거리가 멍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매체와 브랜드들은 '젊음(young)'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젊음이라는 단어는 신선하고, 새롭고, 핫하고, 창의적이고, 트렌디하다는 느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이는 많은 사람이 꿈꾸고 갈망하는 지향점과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젊음을 마다할까요? 이런 면에서 <마리끌레르> 역시 젊음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위 1825 MZ세대에 어필하기 위해 늘 레이더를 세우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이 좋아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원하는 기사를싣고, 이들에게 어필하는 사람들을 다루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에디터나 사진가들은

나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혹 70대 노장 배우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긴 합니다만). 그의 이름 앞에 오는 수식어는 커리어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감명 깊은 어록들이 차지했습니다. 매거진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기로 유명한 <마리끌레르>의 '리얼 피플' 칼럼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젊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뚜렷한 취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다루죠. 패션 화보 속 모델들 역시 과거처럼 큰 키와 마른 몸매, 검은 생머리처럼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금발 쇼트컷 헤어도, 자신을 드러내는 타투도, 작은 키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모델들을 더



설화수 '아름다움은 자란다'

'아름다움은 자란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생애 모든 순간에 본연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설화수의 브랜드 철학을 전파하는 캠페인이다.

선호하죠. 이는 콘텐츠를 만드는 매거진만의 기치관은 아닌 듯합니다. 누구보다 미에 촉각을 세우는 코스메틱 브랜드들 역시 아름다움의 기준을 젊음과 완벽에 두지 않습니다. 주름 제거나 화이트닝, 안티에이징 같은 즉각적이고 일률적인 효과만을 강조하던 문구는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움과 웰 에이징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누죠. 40대 중반을 향해가는 저 역시 늙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좋은 인상을 가진 멋진 여성으로 한 살 한 살 나이 들어가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도 가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설화수의 '아름다움은 자란다' 캠페인에 공명하는 이유는 이런

시대 흐름과 사람들의 필요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목구비가 황금비를 이루는 컴퓨터 미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부러워 할 완벽한 몸매를 갖지 않아도, 또 싱그러운 젊음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생이란 무대의 주변으로 밀려날 이유는 없습니다. 호기롭던 20대에도, 치열했던 30대에도, 성숙하고 영글 어가는 40대, 50대, 그리고 그 이상의 나이에도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무대의 한가운데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멋지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무대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듬뿍 담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향장>은 스스로에게 당당하고, 개성을 마음껏 드러낼 줄 아는 MZ세대 작가들의 아름다움을 바

라보는 각기 다른 시각을 담은 에세이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그들의 원고를 기다리며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만나게 될지 무척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글을 쓰는 작가들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읽으며 미처 깨닫지 못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❶

안소영(<마리끌레르> 편집장)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천5백만여 명의 여성이 매월 애독하는 <마리끌레르>는 스타일 정보만을 다루는 패션 매거진이 아니라, 저널리즘을 기본으로 한 월드 리포트, 일반인의 라이프 스토리 등까지 아우르는 토클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다. 안소영은 <마리끌레르>의 편집장으로서 다양한 여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트렌드를 선도하며, 아모레파시픽의 뷰티 매거진 <향장>의 총괄 디렉팅을 맡고 있다.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깐깐하게 고른 6월의 강추템.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CHOI HYANG JIN



5



3

1. 헤라 아이 멀티
팔레트 글리터, 매트,
쉬머 등 다양한 텍스처와
6가지 컬러로 이루어져
다채로운 메이크업이
가능한 멀티 팔레트.
9g, 6만원.

2. 헤라 선 메이트
프로텍터 SPF50+/
PA+++ 퓨트르 컬렉션
(6월 한정) 1976년
아모레파시픽의 하계
캠페인 '오라~ 태양의
품으로'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변신한 헤라의
선 메이크 프로텍터.
50ml, 3만8천원.

3. 아이오페 에이스
비타민 C30 놀라운
판매고를 올린 비타민
C25가 더 강력해졌다.
비타민 C 함량을 높이고
중년 피부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더한 것이
강점. 23g, 8만원.

4. 설화수 퍼펙팅 베일
베이스 SPF29/PA++
하루 종일 숨쉬듯
편안하면서도 완벽한
피부 바탕을 연출해주는
스킨케어링 베이스.
#01 라이트퍼플,
#02 핑크베이지,
각 30ml, 7만원.

5. 아모레파시픽 빈티지
싱글 익스트랙트
에센스 1000일 에디션
제주 돌송이차밭에서
2017년 수확한 진귀한
찻잎을 1000일간 자연
발효, 속성하여 더욱
강력한 항산화 효능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는 절정의 에센스.
150ml, 42만원.

6. 프리메라 클린 앤
세이프 새니타이저 젤
강력 살균 효과는
기본, 유자와 알로에
추출물을 함유해 손을
촉촉하게 가꿔준다.
50ml, 7천원.

6



